

제10강좌

다도 시연과 연륙차

강사 : 박예경

(다인연합회 이사)

일시 : 2007년 11월 29일 14:00~16:00

다도 시연과 연륙차

박예경 (다인연합회 이사)

I. 다도 시연

1. 궁중다례
2. 사신다례
3. 의식다례
4. 귀빈다례
5. 접빈다례
6. 헌공다례
7. 진다례
8. 생활다례

II. 복식

다례의 제종에 따라 의상이 달라진다.

1. 궁중다례는 궁중의상을 입어야 한다.
2. 사신다례는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므로 우아한 의상을 입어야 한다.

3. 의식다례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게 되므로 그 용도에 따라 의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4. 귀빈다례는 비단 의상 차림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5. 접빈다례는 역시 고풍스럽고 귀족적인 의상 차림이 맞는다.
6. 헌공다례는 죽은 영혼께 드리는 다례이므로 정해진 의상이 있다.
7. 진다례는 귀하신 어른께 드리는 차이므로 고상하고 품위 있는 의상이 맞는다.
8. 생활다례는 현대인들의 옷차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Ⅲ. 한국의 차, 연록차

연록차는 1년에 한 번밖에 제조할 수 없다. 한해 여름(7月에서 8月 사이) 연꽃을 따서 제조한다.

연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연차와 연록차가 있다. 연차는 연꽃만 우려 마시는 것이고, 연록차는 연꽃 속에 녹차를 넣어 3~4일 발효시켜 급냉시킨 다음 1년 후 차로 마신다. 우려 마시는 방법은 대형 다완 연지에서 찻물로 우려내어 마신다. 발효된 연록차 한 송이면 20명~30명은 마실 수 있다.

1. 연꽃(蓮花)과 백연차(白綠茶)

백연차(白蓮茶)는 법제(法制)된 차(茶)를 백연(白蓮)의 화방(化紡)에 넣어 연향(蓮香)을 훈습(熏濕)하여 우려내는 차(茶)이다.

차(茶)만 우려도 색(色), 향(香), 미(味)가 청아(清雅)하고 그윽한데 거기에 사군자(四君子)보다도 으뜸으로 칭송되는 연꽃의 향까지 첨가하여 차(茶)와 연향(蓮香)을 함께 품미할 수 있으니 최고의 풍류차(風流茶)라 아니할 수 없다. 화인(化人)들은 옛 문헌을 고증으로 연차(蓮茶)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오고 있다. 연(蓮)의 모든 부위는 차(茶)로 만들 수 있는데 꽃잎에 차(녹차)를 넣은 연꽃차와 줄기를 찢어 말린 연잎차, 연꽃이나 연잎에 맷힌 이슬을 털어 끓인 차를 하로차(荷露茶)라 한다.

연꽃은 동서양의 많은 문인, 사상가, 철인(哲人)들이 서정을 부치고 송가를 불러 애찬하고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蓮과 茶를 하나로 만나게 한 것이 연차(蓮茶)이다. 그 중에서 백련은 귀하고 귀하여 그 자태가 순결하고 성스러워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연은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가 인도, 스리랑카, 그리스, 이집트, 티벳 지역을 비롯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태국, 기타지역 동양권(東洋)에 고르게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한국)에 전해진 연꽃은 조선시대 학자인 강희맹(1424~1483)이 세조9년 중추원부사로서 진헌부사가 되어 중국 남경에 갔다가 귀국할 때, 전당연 연꽃씨를 고향인 경기도 안산(현 시흥시 하중1동) 관곡지(官谷地)에 심었다. 안산군읍지(安山郡邑地)에 기록되어 있다. 연(전당연)의 출산지는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전당(錢塘)지방으로 많은 연꽃을 심었다.

연꽃의 꽃말은 군자이며 영어로 Lotus라고 하며 연(蓮)과 수련(睡蓮)을 의미한다. 인도의 국화로 고대 민속에서 생명의 창조, 순결, 청정, 다산(多産), 장수와 건강, 풍요와 번영, 행운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나일강변의 수련과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과 생산을 상징하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BC 3천년경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연꽃의 여신상이 발굴되었는데 이 여신이 연꽃위에 서서 연꽃을 쓰고 태어났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연꽃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했으며 푸른 연꽃은 성스러운 신의 향기를 전해준다고 믿었다. 태양과 연꽃을 연관시킨 까닭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연꽃도 피고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 연꽃도 지는 특징을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2. 연꽃의 생태와 종류

연꽃은 크게 연꽃(蓮花)과 수련(睡蓮)으로 나뉘어진다. 물 위에 떠 있는 꽃을 수련(睡蓮)이라 하고, 물 위를 솟아올라 피는 꽃을 연꽃이라 한다. 수련의 색상은 청, 황, 적, 백 등 다양한데 비해서 연꽃은 홍련(紅蓮)과 백련(白蓮)이 존재하는데 아미타경(阿彌陀經)에 기록되어 있다.

연은 뽕에 뿌리(근경)를 두고 자라는데 근경(根莖)은 굵고 옆으로 뻗으며 마디로 공간을 넓혀가며 그 색은 백색이고 가운데 동궁이 있다. 잎은 뿌리의 마디에서 나오는데 잎자루(줄기)는 1~2cm로 길게 물 위로 나오고 그 줄기는 가지같은 물기가 있어 연(꽃잎)과 연결된다. 꽃잎의 지름은 40cm 내외의 둥근 원형으로 꽃은 7월에서 8월에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피어나는데 뿌리에서 꽃줄기가 나와 줄기 끝에 10cm~15cm의 꽃송이가 핀다. 꽃받침은 4~5조각으로 소형이고 황색이며, 꽃잎은 20잎에서 25잎으로 타원형이고 이러한 황금꽃술을 지닌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무렵에 오므라든다. 이렇게 피고 지기를 4~5번 반복하면서 꽃이 수정되면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연심(蓮心 : 암술머리)만 남아 성장하게 된다. 과실(연자)은 연심속에서 타원형으로 점점 커지며 갈색으로 익는다. 처음에는 위를 보고 있지만 연자가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고 밑을 바라본다. 생육의 알맞은 기온은 20~30℃이며 15℃이상의 평균기온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곳으로 우리나라는 전국(全國)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3. 연자의 발아능력

연꽃의 종자 발아능력은 다른 식물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반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은 발아능력이 10년 전후이나 생명보존력은 1,000여년을 넘나드는 우주적 생명력을 지닌다. 연자는 생명력 껍질이 단단하여 물이 묻지 않고 발아할 온도와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이 연자의 배이는 영양을 소비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을 정지하여 시기를 기다린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자의 생명력을 지니는 연자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일본의 연꽃학자인 다이카 이치로(大賀一郎)는 1951년 일본지방의 지하 3.7m 이탄층에서 2천 년 전의 연꽃종자를 발견하여 그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 이를 기념하였는데 이 연꽃을 다이카렌(大郎蓮)이라고 명명하였다.

중국의 손문선생은 중국 산둥의 제남 백작산 지하 이탄층에서 발견한 연꽃 씨앗을 일본으로 보내어 1959년 이 씨앗을 심은 지 3년 만에 꽃을 피웠다고 한다.

영국의 BBC방송은 2002년 2월 28일자에 미국 과학자들이 중국의 한 연못바닥

에서 나온 500년 묵은 연 씨앗을 배양해 꽃봉오리를 피우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씨는 중국 동북부 시파오지 마을에서 찰흙을 채취하다가 1958년에 발견된 것으로 미(美國) 연구진은 1개당 1달러 선에서 구입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실험실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벼씨나 콩, 밀, 채소씨앗은 고작 10여 년간 개체 보존능력이 있는데 비해 연 씨는 500년에서 1000년을 넘어서는 우주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과학이 밝혀내고 있다.

연근에는 뿌리채소로는 드물게 비타민C가 풍부하여 100g 중에 레몬 한 개 정도의 함유량인 55mg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녹말로 보호되어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연근을 자르면 가는 실과 같은 끈끈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뮤신(mucin)이란 물질로 당질과 결합된 복합단백질이다. 뮤신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과 위벽 보호, 해독작용이 있다. 연근을 잘랐을 때 검게 변하는 것은 탄닌 성분과 철분 때문인데, 탄닌에는 강력한 수렴작용과 지혈효과가 있어 치질이나 궤양, 코피, 부인과 출혈 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연차(蓮茶)는 건강 및 보혈에 좋고 차 중에서 으뜸가는 차이다.

4. 연꽃의 명칭

연(蓮)을 하(荷)라고도 하며 연꽃을 연화(蓮花) 또는 하화(荷花) 부용(芙蓉), 수자(水芝), 옥배(玉杯), 유월춘(六月春)이라고 한다.

꽃술을 연수(蓮髓), 암술머리를 연심(蓮心)인 가장자리들 하엽대, 잎자루인 줄기들 하경(荷梗), 연뿌리들 연근(蓮根), 연씨들 연자(蓮子), 껍질 벗긴 연씨들 연육(蓮肉)이라고 한다.

맛이 달기 때문에 감석련(甘石蓮)이라고 한다.

연꽃의 꽃받침 즉, 송이 전체를 연방(蓮房), 연꽃을 심은 연못은 연지(蓮池) 또는 부용지(芙蓉地)라고 한다.



백연차 따르기



연녹차 따르기